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마태복음 8:1-4

정윤돈 목사님

서론

어제 우리교회 앞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식당 사장님 이신 임미누엘서울교회 권사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 “식당이 장사가 잘 되시니까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자기 믿음의 이야기를 하셨다. “하나님 만나는 것 말고 무슨 행복이 있나요?” 그러면서 복음 받은 이야기를 해 주셨다. 복음 이야기를 하니까 얼굴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면서, 저분 얼굴은 이 가게가 망해도 변하지 않겠구나, 정말 그리스도로 행복해 하는구나, 정말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나를 다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권능이다. 문둥병자가 깨끗이 치유받는 것보다 놀라운 것이 이 축복이다.

오늘 본문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나온다. 얼마나 간절하겠는가? 여러분에게 많은 간절한 기도제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법을 어기고, 목숨을 어기고 뛰어나갔다. 법을 어기고 나오면 무리 앞에서 맞아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다. ‘저분을 만나면 내 모든 문제를 치유받을 수 있다. 내가 저분을 만나서 치유되든지, 아니면 맞아죽는 것이다. 그러나 저분에게 가면 분명히 내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주님은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주셨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손을 내밀면서 걱정하지 마라 하시면 모든 문제는 끝이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은 복음의 대열에 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래서 지식, 능력, 학벌과 상관없이,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난한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은 소명, 사명, 천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다.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이 권능이다. 이런 권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이 2천 년 전에 오셔서 딱 3년 사역하셨다. 이 동네에서 치유 사역을 하신 시간도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그 짧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뛰어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고, 사명자로 쓰임을 받았을 것이다. 가족들이 더 기뻐했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났지 않나. 아마 이런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것이다.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고 결단하고 이것을 포럼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굉장한 기회일 수 있다. 목사가 설교를 망쳤다고 느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평생의 은혜를 받고, 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상처를 받는다. 어떤 말씀 속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이게 권능 중의 권능이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 어떤 교회, 어떤 직분, 어

떤 문제도 은혜로, 감사로, 권능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언약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도록 계속 고통을 주신 것이다. 모든 고난, 고통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 뿐이다. 이것을 묵상하다가 답과 결론을 내는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기 전에,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한다. 나는 중증장애인들과 함께 있을 때 결심했다. ‘내가 어느 날 이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다. 더 이상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없을 때가 온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아이들이 바로 천사들이다. 작은 예수님이 다. 그렇게 보고 섬기자.’ 지금은 1년 중에 하루도 이 아들을 볼 수 없도록 바쁘게 되어 버렸다. 지금 시간을 놓치지 마라. 헌신의 기회가 지금이다. 이 때를 놓치지 마라.

(1) 고후6:2에, 바로 지금이 은혜받을 때다. 지금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렵게 된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믿음이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것은 노력을 많이 해야 하지만, 믿음은 오늘 결단하면 바로 오늘 누릴 수 있다. 어렵지 않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도 오늘, 지금 해 버리면 된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기적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다. 지금 믿어버리면 된다. ‘하나님, 저는 세계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가장 역사에서 믿음 있는, 능력 있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교회 1등으로 살리는 주자가 되겠습니다. 현금 1등으로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전교 1등이 되지 못하는 학생들의 첫 번째 특징이, 전교 1등을 하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한다. (웃음) 그러나 믿음의 1등은 바로 지금 할 수 있다. 오늘이 그 때다.

(2)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가? 군중이다. 여론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 사람의 눈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지 못한다. 만약 이 문둥병자가 사람을 너무 의식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너무 분위기를 의식했다면 예수님을 못 만났을 것이다.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겸손히 말씀을 받아야 한다. 어떤 교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분이 이야기하셨다. “제가 뭐 아는 것이 있나요?”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아는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을 한 권 딱 읽은 사람이다. (웃음) 여러분이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 노벨상 수상자라고 하더라도 신학교 1학년 전도사님의 설교를 받아적는다 하면 얼마나 멋진 일이 되겠나?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봉사하고 전도하라.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우리 매형이 말했다. “눈 뜨면 말이 그렇게 잘 나오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올까?” 사람 앞에서 해서 그렇다. 대표기도는 쓰고 읽는 게 좋은데, 그것도 사람 앞에서

쓰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라.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면 큰 일꾼은 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새가족에게 잘 전달해 주어야 한다. 상처받지 않도록 예방 주사를 잘 놓아야 한다.

2.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확고한 믿음이다.

하나님을 안 믿겠다 하면 얼마든지 안 믿을 수도 있다. 증거를 다 대도 안 믿는 사람도 있다. 못 믿겠다 하면 할 말이 없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는 주장을 아무리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그래도 나는 믿어진다’ 하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무 증거 없어도 믿어지고, 믿기 싫어도 믿어진다.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신앙으로 모든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다. 지옥에서 구해낼 수가 없다. 불신앙은 주님도 어쩔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을 가볍게 생각한다. 간음, 강도, 살인보다 약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죄였다. 마귀에게 끌려가는 죄다. 그 불순종의 상태로 계속 있으면 죽는다. 믿음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봉사도 훈련도 믿음의 선택으로 순종해서 하면 응답을 받게 되지만, ‘이 정도 썸이야’ 하면서 가볍게 거부한다. 그러나 이것이 엄청난 축복을 놓치는 선택이 된다.

(1) 이 나병환자는 생명을 건 선택을 했다. 구역장을 맡더라도, 생명 건 헌신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한다. 생명 건 결단을 해야 한다.

(2) 겸손하게, 경배하면서 나아갔다.

(3) “주여, 원하시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영접을 시킬 때도 간절하게 해야만 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만 한다. 300지교회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원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모습인 것이다. 대기업에서 회장이 지시한 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 전성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3천 제자를 붙이실 것이다. 간절하게, 감사하면서 해야 한다.

(4) “저를 깨끗케 할 수 있나이다.” 확신이다. 확신을 가져야 한다. 교회가 꼭 잘 것을 두고 확신을 가지고 그릇을 넓혀라. 나병환자보다 못한 게 아니다.

3.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나병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거듭남의 체험이 있기를 바란다.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진짜 만나는 체험, 치유와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생명 건 헌신을 할 수 있다. 그래야 증거거리가 있다.

4. 이것이 계속되어야 한다.

은혜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 없이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속해야 한다.

(1)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예배를 말하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제사장 앞에 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피제사의 예배를 할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다. 도살장에서 소를 잡는 것과 제사장이 소를 잡는 것은 한 가지가 다르다. 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모든 죄를 소에게 전가한다. 그러면서 소를 찢어죽인다. 누가 하나? 소를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찢는다. 찢을 때 피가 된다. 그 피가 나에게 다 쏟아진다. 한 번에 죽나. 최소한 7, 8번을 찢어야 한다. 그래도 안 죽으면 머리를 때려야 한다. 피가 튀겠나 안 튀겠나. 그렇게 해서 각인시키는 것이다. 이 예배의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의 피를 각인시키는 과정이다. 잊을 수 있겠는가. 이 예배 자체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제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각인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 사역을 하게 되기를 축원한다.

(2) “예물을 드려,” 감사를 말한다.

(3) “가서 증거하라.” 전하라는 것이다.

5. 영적으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1) 마8:17에 보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과 모든 삶이 치유받을 것이 약속되었다. 이미 언약으로 다 붙잡았다.

(2)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단과의 싸움이 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이 땅에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계속 은혜를 받고 스스로를 채워 나가야 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결론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이 권능을 체험할 수 있겠는가?

(1)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꿀 정도로 해야 한다. 그런 경험을 해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나가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은혜가 되니까 내가 안 바뀔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을 채워 나가야 한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인생에 이것을 한 번은 체험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내가 변화될 만큼 말씀을 붙잡게 해 달라고, 목상하고 기도해야 한다.

(2) 어느 정도 해야 하나? 기도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정도로 체험해야 하고, 기도의 의미를 알고 확신해야 한다. 나 혼자 기도로 시대 살릴 렘넌트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런 목회자, 중직자가 나와야 한다. 다 안 하고 다 못 하면 렘넌트가 스스로 일어나서 기도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기도의 가치와 수준이 다르게 된다. 나 혼자 기도해도 직장, 현장을 다 바꿀 수 있다. 이 체험을 해야 한다.

(3) 전도 현장에 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을 만큼 두려워야 한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 내가 만난 주님을 간증할 수 있게 될 정도로 말씀, 기도, 전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두려워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날마다 삶 속에 차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한다.